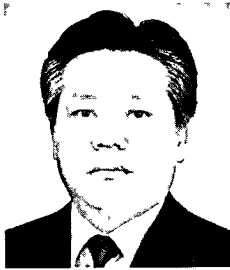


인사말씀

會 長 姜 容 鉉



어려운 經濟여건에도 不拘하고 農漁村 奧僻地에서 불철주야 國民의 保健향상을 위해 獻身하고 계시는 會員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學術事業의 一環으로 지난 97년부터 發刊해오고 있는 학술지 「大韓韓藥」의 보다 충실하고 알찬 내용을 담기위해 玉稿를 지속적으로 보내 주시는 會員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韓藥人들은 先輩들이 일구어 낸 韓方文化의 正統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96년 본격적으로 학술사업에 착수, 97년 첫 「大韓韓藥」 創刊號를 發刊하게 되었으며,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흘러 올해는 어느해 보다 내실있고 알찬 회원님들의 玉稿를 담은 「大韓韓藥」 5號誌를 出刊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學術事業을 통해 지속적으로 「大韓韓藥」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학술사업에 대한 會員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熱情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韓藥人은 許浚 선생의 「東醫寶鑑」과 東武 李濟馬 선생의 「東醫壽世寶元」 등, 역대 우수한 韓方 관련 문헌을 통해 우리의 力量을 쌓아 왔듯이 우리들도 앞으로 後學들이 韓醫藥을 연구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韓方관련 문헌을 남겨야 할 使命과 義務가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本誌의 義意는 크다 할 것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韓方醫療도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널리 해외 醫療시장에 진출, 韓方醫療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떨치고 人類의 健康增進을 위해 이바지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韓藥人의 지속적인 학술사업이 연륜을 쌓아가는 동안 韓方醫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리의 韓方醫藥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그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말씀

우리 韓藥人들이 오랜 세월동안 國民健康과 生命을 위해 獻身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983년 이후로 韓藥業士 제도의 死文化로 후배 한약업사의 배출이 중단되는 현실에 처해있으며, 會員들의 고령화에 따른 廢業 死亡 등으로 인원감소와 함께 회세도 날로 弱化되는 것이 오늘의 現實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韓藥人들은 지속적인 學術事業을 통해 우리의 意志를 結集하고 影響力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이 배출되는 韓藥人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사명감과 전통정신을 심어주어야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갈고 닦아오신 귀중한 秘方과 經驗方을 이번 학술지를 통해 사심없이 공개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大韓韓藥」 5號誌의 發刊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勞心焦思하시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학술위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 4